

대학생의 해양스포츠 참여동기에 대한 내용분석

김덕진 · 고진수 · 양명환* 제주대학교

Content Analysis on Participation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Marine Sports Classes

Kim, Deok-Jin · Ko, Jin-Soo · Yang, Myung-Hwan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논문정보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reasons for participating in marine sports classes. The participants were 240 undergraduates(112 male and 128 females) who were involved in marine sports classes(yacht and scuba diving) at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in Korea. The participants were contacted and answered an open-ended question asking them for their motives and thos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inductive category analysis. With this process,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 Eight major motivation of participation emerged from the inductive content analysis on data were experience, challenge, enjoyment, learning, inducement of significant others, affiliation, achievement and tourism. In total sample, experience motive showed a higher percentage of responses than any other higher category. Also, female students rated more higher on intrinsic motivation than male students.	논문투고 : 2012. 1. 27. 논문수정 : 2012. 2. 17. 제재확정 : 2011. 2. 22
	<i>Key words :</i> marine sports, participation motivation, content analysis

* E-mail : yangmh@ejunu.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활은 지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아카데미즘의 추구와 동시에 정의적, 운동 기능적 영역인 과외활동을 통한 원만한 인격형성과 전인적 발달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시기(김영수, 2008)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여가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 시절 경직된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속에서 여가시간의 부족 및 바람직한 여가교육의 부재 등으로 인해 올바른 여가활동의 방법조차 습득하지 못하고(김상룡, 2009), 그러한 과정에서 여가선용에 관한 자율성과 판단력마저 잃어버린 채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대학에 진학해서는 갑자기 늘어난 여가시간에 어떻게 적응할지 당황해하게 된다.

또한 대학생들은 학업문제, 취업문제, 대인관계문제 등 다양한 스트레스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여가생활에 있어서도 음주문화 및 보드게임, 컴퓨터 오락 등과 같은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2009)에 따르면 20대의 여가활동 중 취미오락활동 및 휴식활동이 전체의 49.6%를 차지하며, 스포츠참여활동은 14.4%로 나타나 이를 뒤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교에서는 문제예방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하였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자연친화적인 야외스포츠의 하나로써 해양스포츠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고, 최근에 많은 대학들이 전공이나 교양과목으로 해양스포츠 종목을 개설하고 있다(박희배, 김지태, 조남홍, 2010). 특히, 대학생의 스포츠 참여는 계속되는 긴장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활력소를 얻고 체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습득의 성취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하여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신적인 훈련을 하게 되어, 사회생활 및 학교생활 적용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최민희, 2006).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은 여가스포츠 활동에도 적용되면서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변화를 추구하며, 이러한 변화는 여가스포츠 활동의 종목에도 영향을 주어 지상위주의 스포츠 활동에서 바다나 강으로의 스포츠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탈 현대성의 맥락에서 자연친화적 스포츠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자연친화적 스포츠는 내재적인 만족과 협동을 강조함과 동시에 이러한 자연친화적 스포츠의 목적은 즐기고, 인간으로서의 존재를 느끼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Eitzen & Sage, 1997). 지삼업(2006)에 따르면, 미래의 스포츠는 자연환경을 공유하는 스포츠로 발전하며 자연친화적 특성을 가진 해양레저스포츠 수요가 증대될 것이며, 무한발전 가능한 신성장 동력으로써 귀중한 자원이라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의 해양스포츠는 잠재적 가치에 비해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해양스포츠 선진사례에 비하여 인프라 구축의 어려움, 해양스포츠 이용에 대한 고비용의 부담, 특권층들만의 스포츠라는 인식,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부족 및 해양스포츠 교육프로그램의 부재 등에서 비롯된 참여인식의 부족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자연과의 호흡을 중요시하는 해양스포츠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해양스포츠 참여의 근원적인 동기 파악의 부재와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규명이 부족하다(김준, 이근모, 2008)는 점이다. 따라서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참여자들의 해양스포츠 행동을 심층적으로 규명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기(motivation)는 스포츠 영역에서 인간의 운동행동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동기는 학자마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고 있지만 '노력에 대한 방향과 강도'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동기는 어떤 분명한 목표를 향해 방향이 주어지고 활성화된 행동의 과정으로서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져 왔다. 동기의 기본적 문제는 행동의 방향과 강도 그리고 지속성과 관련이 있다. 방향은 선택 또는 선호와 관련이 있으며, 강도는 생리적 각성과 관련된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스포츠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은 왜 혼신적으로 참여하며, 어떤 사람은 적당히 참여하는 것일까? 이러한 문제는 모두 참여동기의 문제로 운동행동 연구에 중요한 요인이다(정용각, 1998).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이 건강상의 혜택을 근거로 하여 건강과 체력관련 유인들(incentives)에 주목하였지만 이러한 요인에만 집중하는 것은 활동 참여를 이해하고 유지하는데 충분하지 못함을 주장하였다(양명환, 2000). 예를 들어, Wankel(1985)은 운동을 시작하는 동기가 건강과 체력과 관련된 동기라고 인정하였지만, 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지속하는 개인들은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에 비하여 사회적, 레크리에이션적 이유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인간의 행동은 개인차와 환경적 영향에 의하여 여러 문제들이 교차하면서 동기와 차후 수행수준에 적절하게 작용을 하게 된다(Revelle, 1993). 그러므로 신체활동 및 운동참여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들은 내적인 욕구, 즉 즐거움, 도전, 학습 등의 내적 동기와 신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각종 혜택과 유인들(incentives), 즉 외적동기요인, 시간, 경제적 여유,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여건 조성 등의 결합된 산물이라 말할 수 있다(양명환, 2000). 특히, 동기의 문제는 인간행동을 촉발시키는 내적 그리고 외적 자극에 의해서 오는 의미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이다. 내적 자극은 레크리에이션적 스포츠를 즐기고 좋은 시간의 기억 같은 것을 의미하며 반면에 외적 자극은 물리적, 사회적 환경 요인에 관련되어 있다(Jackson & Burton, 1989). 따라서 여가스포츠의 참여동기는 참가하는 스포츠 상황을 어떻게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동기 성향이 내적 또는 외적으로 지각함으로써 참여수준이 달라지고, 이로 인한 행동의 강도 및 지속이 달라질 수 있다(정용각, 1998).

일반적으로 스포츠에서 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동기이론인 자기결정이론에서는 무동기까지 포함하여 3분류 체계에 의해 동기 접근을 하고 있다(Pelletier, Fortier, Vallerand, Tuson, & Briére, 1995). Deci(1975)는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유능감과 자율성을 느끼려는 내적 욕구에 의해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Weiner(1986)는 스포츠에서 어떤 외적보상을 받지 않고 순수한 즐거움과 흥미에 의하여 발생되는 동기를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라 하였다. Harter(1981)는 어떤 것을 선호한다든지, 도전, 호기심 또는 숙련이나 숙달하는 것을 내재적 동기로 정의하였다. 또한, Vallerand와 동료들(Vallerand & Bissonnett, 1992; Vallerand, Pelletier, Blais, Briére, Sénéchal, & Vallières, 1992; Pelletier, et al, 1995)은 내재적 동기를 또 다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호기심과 탐색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지식 획득 내재적 동기(IM: to know)', 어떠한 것을 완벽하게 하거나 숙달을 위해 성취하려는 '성취도전 내재적 동기(IM: to accomplish)',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의 자극을 경험하려는 '자극추구 내재적 동

기(IM: to experience stimulation)로 분류하였다(문창일, 김병준, 최만식, 문익수, 2005; 정용각, 1998).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는 활동자체에 즐거움을 위해 참여하는 내재적 동기와는 달리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결과의 수단으로써 참여하는 다양한 행동을 말한다(Deci, 1975). Deci와 Ryan(1985, 2002)은 자결성 연속체에 따라 자결성이 낮은 수준인 외적 조절부터 자결성이 높은 통합적 조절까지 외재적 동기의 서로 다른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운동에 참여하는 동기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이러한 동기유형에 의해 참여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가정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기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참여 결과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Manfredo, & Driver, 1996)고 하였으며, Deci와 Ryan(1985, 2002)는 동기 유형에 따라 인간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결과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동기유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스포츠 참여자의 운동행동을 이해하고 동기 결과변인을 향상시키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스포츠 참여에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건강관리보다는 개인의 삶의 질을 위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최근에 주 5일 근무제의 전면시행으로 여가시간이 증가하면서 주말 스포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연친화적인 해양스포츠가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람들이 왜 해양스포츠에 참여하

는지에 대한 참여이유를 탐색하여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참여행동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중의 해양스포츠 참여를 촉진하고 해양스포츠를 활성화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의 스포츠 참여동기 고찰

표 1. 국내 선행연구의 참여동기 분석

연구자(년도)	스포츠유형	요인
양명환(1994)	교양체육	건강체력, 정화, 모험추구, 신체조형, 사회적 동기, 회열추구
정용각(1998)	여가스포츠	즐거움, 기술발달, 성취감, 컨디션, 사교, 건강체력, 외적과시, 무동기
양명환(2000)	원드서핑	학습, 정화, 친화, 건강체력, 즐거움
정용각 외 1인(2003)	달리기	기분추구, 극복성취, 재미, 건강체력, 성생활, 체중조절, 사교, 스트레스 해소
박태준 외 1인(2004)	마라톤	성취지위, 즐거움, 사회적동기, 건강체력, 도전, 주요타자권유
이동준 외 1인(2007)	스키	즐거움, 기술발달, 건강체력, 사교, 무동기
정우진 외 1인(2007)	유소년스포츠	즐거움, 사회성, 체력발달, 성취감, 교우관계
임태성 외 1인(2008)	여가스포츠	외적과시, 정화, 체형관리, 건강, 사회관계
김진표 외 1인(2009)	골프	건강지향, 자기개발, 사교지향, 가정지향, 취미오락
최하얀 외 2인(2010)	스키/ 스노보드	자아실현, 성취감, 대인관계, 경쟁심, 건강체력, 자기표현, 스트레스 해소

<표 1>은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여가스포츠를 중심으로 참여동기에 대해 분석한 내용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여동기 요인들이 적게는 4개에서 많게는 8개의 요인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건강체력, 즐거움(재미), 사교적(대인관계) 요인을 들 수 있으며, 성취감, 기술발달(학습) 등의 요인들도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의 특성이나 참여자에 따라 동기의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스포츠 여가활동에 국한하여 귀납적 내용분석을 통해 참여자들의 동기를 확인하고, 다차원적인 요인구조를 밝혀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동기 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주대학교의 요트와 스쿠버다이빙 전공수업과 하기계절수업을 수강한 대학생 250명이었다. 이 중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응답을 하지 않은 질문지 10부를 제외한 총 240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남학생이 60명(45.1%), 여학생이 73명(54.9%)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대학생이 해양스포츠 참여동기를 탐색하고자 개방형 문항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사용하

였다. 참여자들에게 “귀하께서 해양스포츠 수업에 참여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나 동기는 무엇입니까?”로 개방형 질문에 대해 1개씩만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외에도 질문지에는 성, 연령 등의 인구통계학적 질문이 포함되었다.

3. 자료수집

연구자는 전공수업과 하기계절수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해당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요트는 본 연구자가 직접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를 수집하였고, 스쿠버다이빙은 담당 교수에게 사전에 협조를 구한 후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 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기 전 응답의 자율성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응답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주지시켰다. 질문지는 참여자가 작성할 완료한 즉시 회수하였고, 개별적으로 대략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는 개방형 질문지를 사용하여 대학생의 해양스포츠 참여동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귀납적 내용분석(inductive content analysis) 방법을 활용하였다. 양적 연구방법이 가설로부터 시작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내용분석 방법은 비구조화된 텁색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의 특성을 특정한 분석 준거나 관점에 근거하여 해석함으로써 자료의 특성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이다(Neuendorf, 2002; Krippendorff, 2004).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체 240개의 반응이 분석되었으며, 이를 위해 자료의 정리, 분류, 잠재적 명명, 자료의 범주화, 최종 범주 확정의 단계를 거쳤다.

먼저 수집된 자료는 스포츠심리학을 전공하고 질적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개별적으로 참여자들의 반응에 친숙해지도록 원 자료를 수차례 정독하였으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은 제외하였다. 이어서 연구자는 공동 연구자와 동일하게 워드프로세서에 전사하였으며, 두 그룹으로 나누어 전사된 자료를 각자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 것인지 고려한 후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를 통해 대략적으로 비슷한 개념을 묶으면서 자료의 분류작업을 수행하였고, 일반적으로 어떠한 기준 또는 용어를 사용하여 분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명명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자료의 범주화 과정을 거쳐 최종 범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스포츠심리학 과정의 석·박사 과정생들과 협의를 통해 범주를 분류 또는 통합하는 작업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중복된 개념을 포함하고 있거나 개념이 정확하지 않은 응답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중역역과 대역역을 확정하였다. 보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 빈도가 제시되었고, 대역역이 경우도 빈도와 더불어 백분율을 제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학생의 해양스포츠 참여동기 내용분류

표 2 대학생의 해양스포츠 참여동기 내용 분류

원자료(소영역)	2차 주제(중영역)	3차 주제(대영역)
새로운 경험(35) 다양한 경험(22) 좋은 추억(13)	경험(70) (29.2%)	내재적 동기(186) (77.5%)
새로운 도전(14) 바다에 대한 호기심(8) 두려움 극복(3)	도전(25) (10.4%)	
재미(15) 관심(12) 여가/취미생활(8) 해양스포츠(요트, 스키스쿠버) 흥미(10) 운동선후(8)	즐거움(53) (22.1%)	
배워보고 싶어서(18)	학습(18) (7.5%)	외재적 동기(54) (22.5%)
제주도에 오고 싶어서(10) 제주도 관광(10)	관광(20) (8.3%)	
선배의 권유(16) 친구의 권유(9) 타인의 권유(7)	주요타자의 권유(32) (13.3%)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6)	사교(6) (2.5%)	
자격증 취득(12) 학점 취득(4)	성취(16) (6.7%)	
합 계	8요인(240) (100%)	2요인(240) (100%)

<표 2>는 대학생의 해양스포츠 참여동기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240개의 반응을 보였고, 이는 8개의 중영역과 2개의 대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참여동기에 대한 반응 중에서 내재적 동기로 분류된 중영역의 반응 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새로운 경험', '다양한 경험', '좋은 추억을 위해서'의 소영역을 포함하는 「경험」 영역이 반응수가 70개로서 전체 반응수의 29.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미', '관심' 및 '해양스포츠에 대한 흥미' 등의 「즐거움」 영역이 22.1%로 나타났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 '바다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 극복' 등의 「도전」 영역이 10.4%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에 오고 싶어서'와 '제주도 관광'의 「관광」 영역이 8.3%로 나타났고, '해양스포츠 배워보고 싶어서'의 「학습」 영역은 7.8%로 나타났다. 이 5개의 중영역들은 최종적으로 「내재적 동기」라는 대영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전체 반응 중 77.5%에 해당하는 186개의 반응빈도를 보였다.

또한, 외재적 동기로 분류된 중영역의 반응빈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선배의 권유」, 「친구의 권유」 등 「주요타자의 권유」 영역이 13.3%로 나타났고, 「자격증 취득」, 「학점 취득」 등 「성취」 영역이 6.7%,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서」의 「사교」 영역은 2.5%로 나타났다. 이 3개의 중영역들은 최종적으로 「외재적 동기」라는 대영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전체 반응 중 22.5%에 해당하는 54개의 반응빈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해양스포츠에 참여할 때 외재적 이유보다는 내재적 이유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성별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동기 분석

<표 3>은 성별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동기를

표 3. 성별에 따른 해양스포츠 참여동기 분석

영역	성별		전체
	남	여	
경험	34(30.4%)	36(28.1%)	70(29.2%)
도전	9(8.0%)	16(12.5%)	25(10.4%)
즐거움	26(23.2%)	27(21.1%)	53(22.1%)
학습	9(8.0%)	9(7.0%)	18(7.5%)
관광	6(5.4%)	14(11.0%)	20(8.3%)
주요타자	19(17.0%)	13(10.2%)	32(13.3%)
권유			
사교	2(1.8%)	4(3.1%)	6(2.5%)
성취	7(6.2%)	9(7.0%)	16(6.7%)
전체	112(100.0%)	128(100.0%)	240(100.0%)

분석한 결과이다. 성별에 따른 참여동기를 분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경험」 영역이 30.4%로 가장 높은 반응빈도를 보였고, 그 다음은 「즐거움(23.2%)」, 「주요타자 권유(17.0%)」 「도전(8.0%)」, 「학습(8.0%)」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은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경험」 영역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즐거움(21.1%)」, 「도전(12.5%)」, 「관광(11.0%)」, 그리고 「주요타자 권유(10.2%)」 영역 순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본 연구의 주목적은 해양스포츠 참여에 기초가 되는 참여동기 요인들을 확인하고 표준화된 질문지를 개발하기 위한 초기 작업을 수행하는데 있다.

해양스포츠 전공수업과 하기계절수업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참여동기에 대해 개방형 질문을 하여 총 240개의 개별응답을 얻어냈다. 이 원자료에 대해 수차례의 전문가 회합을 통해 귀납적 내용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험, 도전, 즐거움, 학습, 관광, 주요타자의 권유, 사교, 성취의 8가지 요인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이 8가지의 영역은 다시 Deci와

Ryan(1985, 2002)의 자기결정이론에 근거하여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라는 2개의 대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선행연구들(양명환, 2000; 이동준, 정승삼, 2007; 정용각, 1998; 정용각, 오성기, 2003; 정우진, 권상수, 2007)의 참여동기 구조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동기이론에서도 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기는 내재적 동기로 평가된다. 내재적 동기는 활동 그 자체로 인해 파생되는 기쁨과 만족을 위해 참가하는 행동을 말한다. 활동이 흥미 있고, 도전적이고 사람들에게 명확한 피드백을 주고 과제 수행에 대한 자율성이 보장될 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박태준, 양명환; 2004, 정용각, 오성기, 2003; Deci & Ryan, 1985). 본 연구에서도 경험, 즐거움, 학습, 관광 5개의 중영역들은 내재적 동기로 분류할 수 있다. 경험, 즐거움, 도전, 관광 동기는 자기결정이론에서 따라 몰입이나 즐거움의 자극을 경험하려는 '자극추구의 내재적 동기'로 분류할 수 있다. 경험 동기와 관광동기는 양명환(1994)의 연구에서 나타난 모험추구, 회열추구 요인과 유사한 요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경험동기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다른 곳을 탐색하려는 관광동기는 즐거움의 자극을 경험하려는 '자극추구의 내재적 동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즐거움 동기는 스포츠 분야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이다. 특히, 도전 동기는 스포츠 종목 중에서도 마라톤 관련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인 중 하나로 정용각의 달리기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나타난 극복성취 요인과 유사하며, 서구의 선행연구(Clough et al., 1989; Johngard, 1985a, 1985b; Summers, Machin, & Sargent, 1982, Summers, Sargent, Levely, & Murray, 1983)의 결과에서도 동일한 요인이 발견된다. 그러나 도전 요인의 경우 일반 스포츠 종목에

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모험을 수반한 종목들(예: 마라톤, 철인3종, 패러글라이딩 등)에서 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학습동기는 국내의 선행연구들(정용각, 1998; 양명환, 2000; 이동준, 정승삼, 2007)에서 나타난 기술발달 요인과 유사하며, 자기결정이론에 따라 무엇을 알려고 하는 '지식획득 내재적 동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재적 동기로 분류된 주요타자의 권리, 사교, 성취는 전체 응답자 중 22.5%의 반응빈도를 보였다. 주요타자의 권리 요인은 서구의 선행연구 (Carmack & Martens, 1979; Curtis & McTerr, 1981; Summers et al., 1982, 1983)에서 타인의 영향이라는 요인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내용을 측정하고 있었으며, 국내에서도 마라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박태준과 양명환(2004)의 연구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해양스포츠 수업의 특성상 정보력이 부재하여 선행 학습을 한 선·후배나 친구의 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교 요인은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친화, 유대관계, 대인관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자기결정이론에 따라 외재적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자기결정이론에서는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유대관계를 맺는 것을 확인적 조절동기로 분류하고 있다. 박태준과 양명환(200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동기로 명명하여 외재적 동기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취요인은 정우진과 권상수(2007), 최하얀 등(2010)의 성취감 요인, 박태준과 양명환(2004)의 성취지위 요인과 유사하지만 문항 반응은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박태준과 양명환(2004)은 성취지위를 내재적 동기로 분류하였지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성취 요인은 선행연구와는 달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점 취득을 위해'와 같이 어떠한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는 자기결정이론에서의 확인적 조절동

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외재적 동기로 분류하였다.

한편 성별에 따른 대학생의 해양스포츠 참여동기를 분석한 결과, 반응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내재적 동기가 높고, 남학생은 외재적 동기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동기구조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우리나라 문화권에 고유한 특성을 좀더 포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제작하기 위한 예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서구문화뿐만 아니라 국내의 선행연구에서 출현하는 안정된 요인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들과의 비교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성취요인이 외재적 동기로 분류했다는 점과 내재적 동기로 분류된 관광 요인이 새롭게 출현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1의 관광도시인 제주도에서 수업을 통해 해양스포츠 지식을 습득하고 학점도 따고, 아울러 제주도를 여행하려는 대학생들의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 때문에 해양스포츠 참여자를 대표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으며, 해양스포츠 종목도 요트와 스쿠버다이빙에 국한했기 때문에 깊이 있고 보다 풍부한 자료를 얻는데 한계가 있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스포츠 종목도 다양한 종목을 선정하여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추후 연구는 보다 표준화된 척도개발을 위해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유에 대한 개념을 보완하여 요인을 탐색하고, 탐색된 요인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척도의 타당화 검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상룡(2009). 대학생의 여가레크리에이션 참여와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자아실현간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목표대학교 대학원.
- 김영수(2008). 대학생의 스포츠동아리 활동 참가가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2(2), 1205-1216.
- 김준, 이근모(2008).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참여동기와 인지몰입, 행위몰입,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3(2), 1219-1230.
- 김진표, 이상기(2009). 골프연습장 여성 이용자의 참여동기와 여가만족의 관계. 용인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논문집, 19(1), 77-92.
- 문창일, 김병준, 최만식, 문의수(2005). 한국판 스포츠동기 척도(KSMS-27)의 타당도 점검.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6(2), 49-70.
- 문화체육관광부(2009). 2008 여가백서.
- 박태준, 양명환(2004). 마라톤대회 참여동기와 참여 만족에 대한 귀납적 내용분석. *제주대학교 체육전용센터 체육과학연구*, 10, 115-130.
- 박희배, 김지태, 조남홍(2010). 해양스포츠 참여 대학생의 재미요인과 여가만족 및 지속의도와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4(3), 257-267.
- 양명환(1994).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5(2), 107-122.
- 양명환(2000). 원드서핑 여가스포츠의 참여동기 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9(2), 805-819.
- 이동준, 정승삼(2007).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스키 참가자의 참여동기와 생활만족의 인과관계

- 분석. *한국체육과학학회지*, 16(2), 87-97.
- 임태성, 임호열(2008). 여가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관여도, 몰입경험 및 지속적 참여의도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4, 1567-1580.
- 정우진, 권상수(2007). 상업적 유소년스포츠클럽 참여동기와 선택속성이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 383-392.
- 정용각(1998). 스포츠 참여동기의 탐색적 요인 분석.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9(1), 113-132.
- 정용각, 오성기(2003). 사람들은 왜 달리는가?: 달리기 참가자의 참여동기 요인 탐색.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14(1), 69-89.
- 지삼업(2006). 고등학생의 해양스포츠 활동과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교육학회*, 18(3), 329-340.
- 최민희(2006). 대학 스포츠 동아리 참여자의 참여동기와 사회적 태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하얀, 배상우, 양도업(2010). 스키·스노보드의 참여동기 분석. *한국사회체육학회지*, 42, 1265-1275.
- Carmack, M. A., & Martens, R. (1979). Measuring commitment to running: A survey of runners' attitudes and mental states.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 25-42.
- Clough, P., Shepherd, J., & Maughan, R. (1989). Motives for participation in recreational running.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1, 297-309.
- Curtis, J. & McTerr, W. (1981). The motivation for running. *Canadian Runner*, 18-19.
- Deci, E. L. (197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Press.
- Deci, E. L., & Ryan, R. M.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Eitzen, D. S., & Sage, G. H. (1997). *Sociology of north american sport*. (6th Ed.). Boston: McGraw-Hill.
- Harter, S. (1981). A model of intrinsic mastery motivation in children: individual difference and developmental change. In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4(pp. 215-255). Hillsdale, NJ: Erlbaum.
- Jackson, J. H., & Burton, T. L. (1989). *Understanding Leisure and Recreation: Mapping the past Charting the Future*, Venture Publishing, Inc, State College, PA 16803.
- Johnsgard, K. (1985a). The motivation of the long distance runner.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Medicine*, 25, 135-139.
- Johnsgard, K. (1985b). The motivation of the long distance runner.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Medicine*, 25, 140-143.
- Krippendorff, (2004).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Lafrenière, M.-A. K., Jowett, S., Vallerand, R. J., Donahue, E. G., & Lorimer, R. (2008). Passion in sport: on the quality of the coach-athlete relationship. *Journal of Sport*

- and Exercise Psychology*, 30, 541-560.
- Manfredo, M. J., Drive, B. L. (1996). Measuring leisure motivation: A meta-analysis of the recreation experience preference scal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8, 188-213.
- Neuendorf, K. (2002). *The Content analysis guidebook*. Thousand Oaks, CA: Sage.
- Pelletier, L. G., Fortier, M. S., Vallerand, R. J., Tuson, K. M., & Brière, N. M. (1995). Toward a new measure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motivation in sport: The sport motivation scale(SMS).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17, 35-53.
- Revelle, W. (1993).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and motivation: 'Non-cognitive' determinants of cognitive performance. In A. Baddeley & L. Weiskrantz, (Eds.), *Attention: selection, awareness and control: a tribute to Donald Broadbent*. (pp. 346-37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Vallerand, R. J., & Bissonnett, R. (1992).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al styles as predictors of behavio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99-620.
- Vallerand, R. J., Pelletier, L. G., Blais, M. R., Brière, N. M., Sénéchal, C., & Vallières, E. F. (1992). The Academic Motivation Scale: A measure of intrinsic, extrinsic and amotivation in education.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2, 1003-1017.
- Wankel, L. M. (1985). Personal and situational factors affecting exercise involvement: The importance of enjoyment. *Research Quarterly for Exercise and Sport*, 56, 275-282.
- Weiner, B. (1986). An attribution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